

## 집 안에 들어온 두꺼비

늦은 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뒤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두꺼비 한 마리가 집안으로 냉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온 놈은 제 땀에 놀라서인지 경중경중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열어 놓은 안방 문을 지나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코 그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기 살충제를 뿌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간신히 안방에서 쫓아냈지만 놈은 다시 거실 소파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앓았습니다. 무거운 소파를 겨우 들고 긴 파리채로 놈을 현관 문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현관 방충문에 붙은 놈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그머니 문을 열어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집 안에 들어온 그 독 두꺼비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허락없이 쳐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온 놈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듯이, 코로나라는 이 덩치 큰 놈도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쫓겨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님에게 감사드리며, 주께서 꼭 건강과 평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11 월에 보내드린 편지에서 기도 부탁을 드렸던 **도르카스**가 아빠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인 도르카스의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못한 지 2 년 만에 결국 아픈 다리를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1 주일도 안 돼 병원에서 갑자기 소천한 것입니다. 도르카스의 가정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도르카스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2 년 넘게 계속 해외 빈곤 아동 결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편부모 가정이 7 가정이나 됩니다. 도르카스, 옥타, 캐빈, 미카엘, 레니, 마리암, 그리고 요수아. 이 아이들을 만나 결연금을 전달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니**(중 1, 사진)는 아버지만 있는데 아버지가 정신적인 문제로 집안에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니는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선교는 닳아서 못쓰게 될 때까지 주님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리는 장난으로 마스크를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아마도 제리의 나이(중 2)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리는 그 성경책이 좋습니다. 그만큼 정이 들었던 것이겠지요. 제리에게 근사한 성경책 하나를 사주고 싶습니다. 밖에서 놀기를 좋아해서 피부가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요! 10 여년만에 태어난 동생이 병으로 갑자기 죽고 난 후 제리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동생을 주셔서 기어코 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닳아서 못쓰게 된 성경책처럼 주님이 맘껏 쓰시는 제리가 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 카이와 시파를 위해 중보기도 요청

기도의 동역자님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카이와 일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는 시파라는 어린 자매들입니다. 이 자매들은 순다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 20 세가 되기까지 무슬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신분증에는 종교가 여전히 이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통하여, 그리고 찬양 가사와 곡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귀한 자매들을 지난 성탄절에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주와 하나님이신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선지식에 반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 몰래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그들의 회심을 알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떠나 따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이슬람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학 공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매들이 잘 양육을 받아 이들을 통하여 또다른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연락처: +62-813-9488-8002, 070-8246-3990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한국지피선교회 재경간사)

인도네시아 ‘발리(Bali)’ 하면 유명한 관광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힌두교인이 발리 인구의 86.8%나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교회와 신학교가 있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신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선발하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보내 더 공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한국어를 가르치다보니 제가 사는 곳 반둥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이나 걸리는 발리의 신학생들까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또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소식입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인도네시아에서 꾸준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아들 성은이가 다리에 감염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고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4 개월 동안 거의 매일 작은 병원에 가서 염증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1 월 성은이는 큰 병원에 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은이가 병실에서 홀로 2 주를 넘게 지내는 동안 부모로서 가보지도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와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진이는 겨울 방학 내내 인턴으로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학기부터는 한동대 신입생(새내기)들을 섬기는 ‘새섬’을 자원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김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한국어 사역과 방과후 마을 사역 현장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2. 성경공부와 제자 양육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3. 1 대 1 해외빈곤아동 결연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4. 성은이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진이의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도록.

2022 년 2 월 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성은, 성진) 선교사 올림

- 저희 사역 소식과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밴드(BAND)/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